

성보경영고등학교

8개 학과는 어떻게 바뀌고, 학생·교사는 무엇을 준비하는가

AI 시대, 우리 학생의 미래 지도

17 2026년

강사 김지백 · 한국경영교육연구소

강의 개요

교육명	AI 시대, 우리 학생의 미래 지도
교육대상	성보경영고등학교 전체 교직원
교육형식	2시간 단회 특강
핵심질문	일자리는 사라지나 · 학과는 어떻게 바뀌나 · 무엇을 준비하나
강사	김지백
주관	한국경영교육연구소

오프닝

당신의 직업은, AI에 안전한가요?

| 위협이 아니라 '지도'를 그리는 2시간

오프닝

오늘 강의를 여는 한 문장

“

AI가 일자리를 빼앗는 게 아니라, AI를 쓰는 사람이 안 쓰는 사람을 대체한다

— 리처드 볼드윈 · 세계경제포럼(WEF) 2023



무서운 건 변화가 아니라, 변화를 알면서도 준비 안 하는 것입니다

오프닝

오늘 함께 답할 3가지 질문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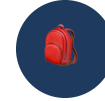
사라지나?

일자리는 정말 사라질까 (큰 그림)



어떻게 바뀌나?

우리 8개 학과 진출 분야의 변화



무엇을 준비하나?

학생 3년 · 교사의 오늘 한 가지

Part 1

큰 그림 — 일자리는 사라지는가

| 데이터로 보는 2026년 AI 시대

일자리는 정말 '사라질까'?

0개

'감소' 분류 직업 (182개 분석)

+7,800만

2030년까지 일자리 순증 (WEF)

22%

직무가 크게 격변 (WEF)



직업의 '소멸'이 아니라 '재편'입니다 — 통째로 사라지는 게 아니라 일의 내용이 바뀐다

그래서 어떤 '업무'가 사라지나 — 구체 사례

8배↑

키오스크 도입 (5년)

1.1만대

서빙로봇 보급 (2023)

-45만명 ▼

판매종사자 (10년)

-56% ▼

회계 사무 채용 (3년)



키오스크가 '주문받기'를, 로봇이 '서빙'을 가져갔습니다 — '직업'이 통째로 아니라 '업무'가 하나씩 사라진 것

우리 8개 학과, 사라지는 업무는? — 함께 생각해보기

학과	사라지는 업무(예)	대체하는 기술
디지털비즈니스	상품등록·상세페이지 수작업	카페24 에디봇
세무행정	전표입력·단순 기장	더존 ONE AI
비주얼디자인	누끼·시안 찍어내기	Firefly·Canva
관광레저	단순 예약·일정짜기	하나투어 H-AI
외식조리	주문받기·서빙	키오스크·서빙로봇
제과제빵	단순 성형·감(感) 발주	AI 수요예측
펫매니지먼트	X-ray 1차 판독·차트	SKT 엑스칼리버
보건간호	차트작성·접수·청구	보이스 EMR



생각해보기 — 우리 과 학생이 갈 현장에서, 가장 먼저 사라질 업무 하나는 무엇일까요?

누가 먼저 총격받나 — 사무직이 1순위

먼저·크게 받는다

- ✗ 책상 위 반복·정형 사무
- ✗ 전표입력·단순 콜센터
- ✗ 사무직 대체율 39%→67%

VS

늦게·덜 받는다

- ✓ 현장 손작업·대면 서비스
- ✓ 돌봄·조리·미용·정비
- ✓ 몸과 손으로 하는 일



특성화고가 길러내는 게 바로 '늦게 받는 일'입니다 (한국은행·고용정보원)

그래서 특성화고가 오히려 유리하다



바로 일하는 능력

18세에 이미 현장에. AI는 현장 아는 사람이 쓸 때 위력 100배



손기술·신체작업

AI·로봇이 가장 못 따라오는 영역



도메인 + AI

전공이 곧 도메인. 여기에 AI만 얹으면 된다

정리

- 1 ✓ 일자리는 소멸이 아니라 재편된다
- 2 ✓ AI는 현장직보다 사무·지식직을 먼저 친다
- 3 ✓ 특성화고의 현장성은 약점이 아니라 차별화 자산

Part 2

우리 8개 학과는 어떻게 바뀌나

| 총격의 '성격'으로 3묶음 — A 직접총격 · B 사무자동화 · C 현장안전지대

8개 학과, 총격의 성격이 다르다



A 직접 총격형

도구로 올라타라 — 비주얼디자인



B 사무 자동화형

검증·설명하는 사람으로 — 세무·디지털비즈니스·관광



C 현장 안전지대형

사람만의 영역 키워라 — 외식·제빵·펫·보건간호



핵심 한 줄: '사라진다'가 아니라 '갈린다(양극화)'

교사의 고민 — 과목은 알지만 '현장'은?

“

선생님은 과목의 정밀한 '지도'를 가졌습니다. 그런데 학생이 걸어갈 현장은, 매일 새로 깔리는 '실제 길'입니다.

— 그래서 학과마다 '요즘 현장은 이렇게 바뀐다'를 한 컷씩 담았습니다



현장 사례를 매번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— Part 4에서 '수업 중 즉석 조사 프롬프트'를 드립니다

[A·직접총격] 비주얼디자인과

▼ 줄어드는 일

- ✗ 누끼·보정·단순 편집
- ✗ 시안 손으로 찍어내기
- ✗ 사이즈별 리사이징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아트디렉션·콘셉트 결정
- ✓ 쓸 것 골라내는 큐레이션
- ✓ 브랜드 판단·설득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광고·디자인 스튜디오는 미드저니·파이어플라이로 시안 10개를 분 단위로 뽑고, 디자이너는 '고르고 다듬는' 역할로. AI로 만든 영화가 영화제 대상까지 받았습니다.



결정적 차이

AI 시안 5개 중 '이건 브랜드와 안 맞아'를 짚어내는 안목

[B·사무자동화] 세무행정과

▼ 줄어드는 일

- ✗ 단순 기장·전표입력
- ✗ 자동분개·증빙 수기입력
- ✗ 단순 신고서 작성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AI 결과 검증·오류탐지
- ✓ 세무 상담·자문
- ✓ 책임지는 최종 판단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세무사무소에 더존 ONE AI가 들어와 법인세 신고서를 2~3분에 초안. 신입은 '입력' 대신 'AI가 맞게 했나' 검증을 봅니다.



결정적 차이

틀린 분개·신고를 잡아내는가 (틀리면 가산세·법적 책임)

[B·사무자동화] 디지털비즈니스과

▼ 줄어드는 일

- × 상품등록·상세페이지 수작업
- × 1차 단순 고객응대
- × 광고 키워드 수동세팅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AI 결과물 검수·QA
- ✓ 콘텐츠·상품 기획(MD)
- ✓ 데이터로 의사결정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쇼핑몰은 카페24 에디봇으로 상세페이지를 분 단위로 찍고, 단순 CS 문의의 절반 이상은 채널톡 AI가 응대. 사람은 검수·기획으로 옮겨갑니다.



결정적 차이

버튼만 누르나 vs '무엇을·누구에게 팔지' AI에 시키나

[B·사무자동화] 관광레저경영과

▼ 줄어드는 일

- ✗ 단순 예약·일정짜기
- ✗ 반복 문의응대·기본 통역
- ✗ 체크인 수속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현장 대면 서비스
- ✓ 고난도 컴플레인 대응
- ✓ 로컬 경험 기획·큐레이션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하나투어는 자체 AI로 상품 등록·환불 문의를 자동화, 야놀자는 챗GPT를 전사 도입. 직원은 결항·컴플레인 같은 '사람만의 순간'으로.



결정적 차이

'AI가 못 하는 순간'(결항·컴플레인)을 사람 판단으로 장악하나

[C·현장안전지대] 외식조리경영과

▼ 줄어드는 일

- × 주문받기·계산(키오스크)
- × 음식 나르기(서빙로봇)
- × 단순반복 조리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로봇 운용·품질관리(QC)
- ✓接客·경험 설계
- ✓ 데이터로 발주·판단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매장엔 키오스크·서빙로봇이 기본, '알파그릴' 같은 조리로봇이 패티를 굽기 시작. 단 조리로봇 도입률은 0.2%(막 시작). 점장은 로봇 세팅·맛 QC로.



결정적 차이

'패티 굽는 사람'이 아니라 '맛을 책임지고 데이터로 판단하는 사람'

[C·현장안전지대] 제과제빵과

▼ 줄어드는 일

- ✗ 단순 성형·토픽
- ✗ 커피 추출 일관 노동
- ✗ 감(感)에 의존한 발주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시그니처 메뉴 개발
- ✓ 매장 감성·경험 연출
- ✓ AI 발주 해석·장비 운용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파리바게뜨는 AI 스마트공장, 뚜레쥬르는 AI 수요예측으로 폐기를 거의 없앴. 동시에 동네 수제·장인 빵집의 '손기술 프리미엄'은 오히려 큼니다.



결정적 차이

양극화 — 대량생산은 자동화, 손기술 프리미엄은 오히려 성장

[C·현장안전지대] 펫매니지먼트과

▼ 줄어드는 일

- ✗ X-ray 1차 판독·계측
- ✗ 수기 차트·진료기록
- ✗ 검진 리포트·등록 행정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핸들링·행동교정·전문미용
- ✓ 펫테크 데이터 해석
- ✓ 보호자 코칭·상담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동물병원엔 SKT 엑스칼리버가 X-ray를 판독하고, 보호자는 티티케어로 집에서 1차 체크. 미용·훈련·핸들링은 여전히 사람의 손. 동물보건사가 국가자격이 됐습니다.



결정적 차이

'시'는 강아지를 스캔해도 안아줄 수는 없다' — 신체+감정노동

[C·현장안전지대] 보건간호와

▼ 줄어드는 일

- × 차트작성·접수·보험청구
- × 활력징후 단순 기록
- × 반복 모니터링

VS

▲ 커지는 일

- ✓ 정서적 돌봄·공감
- ✓ 맥락을 읽는 관찰력
- ✓ 손기술 처치·간호 보조



현장에서는 — 요즘 이렇게

병원엔 루닛이 영상 판독을 돕고, 보이스 EMRI가 차트를 자동 작성. 요양현장엔 효돌 같은 돌봄로봇. 그래도 손길·정서 돌봄은 사람이고, 일자리는 오히려 늘어납니다.



결정적 차이

'혈압 수치는 AI가, 손을 잡아주는 건 사람'

이 사례, 영상으로 직접 보세요 ① — 디자인·세무·디지털비즈니스·관광

비주얼디자인과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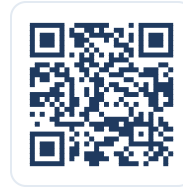


삼성생명 '좋은 소식의 시작' (100% AI 광고)
▶ 삼성생명



영원히 달리는 자동차 (촬영 0·100% AI)
▶ 현대자동차

세무행정과



ONE AI로 종합소득세 신고하기
▶ 위하고 WEHAGO



국세청이 띄운 '삼짇삼 대항마'
▶ SBS 뉴스

디지털비즈니스과



에디봇 — AI로 상세페이지 자동제작
▶ 카페24



쿠팡 AI 스마트광고 vs 매출최적화
▶ 한드래곤

관광레저경영과



하나투어 AI 채팅상담 성공기
▶ 메가존클라우드



얼굴만 대고 출국 — 스마트패스 확대
▶ YTN



폰 카메라로 QR을 찍으면 바로 영상으로 — 첨부 '영상 링크 모음' 파일에 전체 링크가 있습니다

이 사례, 영상으로 직접 보세요 ② — 외식·제빵·펫·보건간호

외식조리경영과



조리로봇이 주방 일자리 80%? 햄버거 패티
▶ EBS 컬렉션



1시간에 패티 200개 굽는 로봇
▶ 에니아이 Aniai

제과제빵과



커피 만드는 바리스타 로봇
▶ YTN 사이언스



로봇 바리스타 시간당 100잔 (라운지엑스)
▶ 무인창업시대

펫매니지먼트과



엑스칼리버 — 동물병원 X-ray AI 진단
▶ SK telecom



반려동물 AI 헬스케어·펫보험료 인하
▶ YTN

보건간호과



노인 마음 돌본 AI 로봇 '호돌'
▶ JTBC News



암 잡아내는 한국 의료 AI (루닛)
▶ 신사이트



수업 전 한 편씩만 보셔도, 그 학과 현장이 확 그려집니다 (출처: 공식 채널·뉴스)

정리

- 1 ✓ 직접충격(디자인)은 'AI를 도구로 올라타기'
- 2 ✓ 사무자동화(세무·비즈·관광)는 '검증·판단하는 사람으로'
- 3 ✓ 현장안전지대(외식·제빵·펫·간호)는 '사람만의 영역 키우기'

AI 활용

그래서, AI를 어떻게 쓸 것인가?

| 복붙에서 멈추지 마라 — AI를 '부려쓰는' 사람으로

AI 활용 5단계 사다리 — 복붙은 1층일 뿐



1단계 · 복붙

받은 프롬프트를 그대로 붙여넣기 — 대부분 여기서 멈춘다



2단계 · 대화·검증

되묻고 고치고 '근거가 뭐야?' — AI 환각을 잡아낸다



3단계 · 맞춤 도구화

나만의 GPT·NotebookLM에 우리 교과서·자료를 넣어 전용 조교로



4단계 · 자동화

엑셀·문서·반복 업무를 AI로 연결해 시간을 번다



5단계 · 에이전트·직접 만들기

AI에게 시켜 도구·자료를 '만들게' 한다 (비개발자도 가능)



한 번에 5층까지 갈 필요 없어요 — 오늘 '한 칸'만 올라가면 됩니다

복붙에서 멈출 때 vs AI를 부러쓸 때

복붙에서 멈추면

- ✗ 받은 답을 그대로 제출
- ✗ 맞는지 틀리는지 모름
- ✗ 매번 처음부터 다시
- ✗ 'AI 썼다'는 티만 남음

VS

AI를 부러쓰면

- ✓ 검증해서 '내 것'으로
- ✓ 나만의 도구로 재사용
- ✓ 자동화로 시간을 번다
- ✓ 'AI를 부린 결과물'이 남음



1교시의 그 문장 — 'AI를 쓰는 사람이 대체한다'의 '쓰는'은, 복붙이 아니라 '부러쓰는'입니다

AI 활용

오늘, 딱 한 칸만 올라가기



교사가 올라갈 한 칸

잘 되던 프롬프트를 '맞춤 GPT'로 저장 · NotebookLM에 교과서·NCS 올려
전용 조교 · 가정통신문·생기부 예문 자동화



학생이 올라갈 한 칸

같은 질문 3가지로 묻고 답 비교 · 전공 과제를 AI로 만들고 '틀린 곳 3개 찾
기' · 취업·진학 자소서를 AI로 쓰고 '내 말로' 검증



오늘 보신 이 슬라이드쇼·현장 브리핑 도구도 — 복붙이 아니라 'AI를 부려' 만든 5단계의 실제 결과물입니다

Part 3

학생은 3년간 무엇을 준비하나

| 전공이라는 '뿌리'는 굵게, 그 위에 시를 엮는다

학생 3년 로드맵

1

AI랑 친해지기

전공 기초 + 매일 질문 3개

2

AI를 전공에 얹기

실습마다 AI 적용 + 포트폴리오

3

활용 경험 증명

취업·진학 면접 무기 1개



전공 실력이라는 '뿌리'는 3년 내내 굵게 — AI는 그 위에 얹는 도구

AI 시대 6대 역량 + 무료 도구



AI 리터러시

AI로 시작→검토→완성 루틴



프롬프트

조건·예시·역할 넣어 묻기



데이터 기초

숫자 읽고 거짓에 안 속기



비판적 검증

'근거가 뭐야?' 한 번 더 묻기



협업·설명

AI 결과를 내 말로 풀기



평생학습

도구는 계속 갈아끼운다



무료 도구: ChatGPT·Gemini·Claude·Copilot·Canva·NotebookLM (연령·약관 확인)

정리

- 1 ✓ 1학년 친해지기 · 2학년 엮기 · 3학년 증명하기
- 2 ✓ AI를 '검증'할 줄 아는 비판적 사고가 핵심
- 3 ✓ 졸업장 1번으로 평생 가는 시대는 끝났다

Part 4

교사는 무엇을 준비하나

| AI는 당신을 대체하러 온 게 아니라, 시간을 돌려주러 왔다

교사의 4가지 준비



잡무를 AI에 덜기

학습지·공문 초안은 AI, 감수는 교사



전공의 통역자 되기

내 전공의 AI 변화를 수업에 통역



진로지도 전환

AI는 정보를, 교사는 의미를 준다



사라지지 않는 가치

공감·동기부여·신뢰 관계

수업이 늘 최신이 되게 — 교사용 현장조사 프롬프트

“

“너는 [학과] 분야 현장 전문가다. [수업 주제]를 가르칠 때, 학생이 진출할 [업종]에서 2026년 AI가 어떻게 쓰이는지 최신 사례 5개를 고교생 눈높이 비유와 함께 한 장의 HTML로 브리핑해 줘.”

— ChatGPT·Claude·Gemini에 붙여넣기만 하면 됩니다

1

복사

첨부 프롬프트 파일



2

빈칸 채우기

학과·주제·업종



3

AI에 붙여넣기

ChatGPT 등



4

HTML 브리핑

수업에 바로 활용



복사용 프롬프트·샘플 HTML 첨부 — 단, 이건 1단계. '맞춤 GPT'로 저장하고 자동화하면 한 칸씩 올라갑니다

오늘 당장, 한 가지만

31%↓

교사 수업준비 시간 (OECD 2026)

약 6시간

주당 절약 (교사 60%, 껄럽)



단, 학생 실명·민감정보는 AI에 입력 금지 (교육청 가이드라인)

정리

- 1 ✓ AI는 잡무를 덜어 교사를 더 교사답게 만든다
- 2 ✓ 전공 변화를 학생에게 통역하는 새 역할
- 3 ✓ 공감·동기부여·신뢰는 AI가 못 가져간다

AI는 'How'를 가져갔습니다. 살아남는 사람은 'What·Why·Who'를 쥘 사람입니다

AI 시대, 우리 학생의 미래 지도

강사 김지백 · 한국경영교육연구소

 문의 · 한국경영교육연구소 · 강사 김지백